

TV 8월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(KBS1, KBS2, MBC, KBC/SBS) with columns for channel, time, and program title.

'더 바이러스' 엄기준 "액션연기 도전하고자"

“제가 드라마를 많이 찍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야식 안 주는 데는 처음이었어요. 드라마 특성상 밤에 찍는 장면이 많았는데 야식을 전혀 안 주더라니까요. 배고파서 서랍기까지 했어요.(웃음)”



<엄기준>

“제가 드라마를 많이 찍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야식 안 주는 데는 처음이었어요. 드라마 특성상 밤에 찍는 장면이 많았는데 야식을 전혀 안 주더라니까요. 배고파서 서랍기까지 했어요.(웃음)”

“제가 드라마를 많이 찍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야식 안 주는 데는 처음이었어요. 드라마 특성상 밤에 찍는 장면이 많았는데 야식을 전혀 안 주더라니까요. 배고파서 서랍기까지 했어요.(웃음)”

됐다. 최근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팬 미팅을 열기도 했다. “뮤지컬과 드라마를 병행하려니 한 해에 신작 한 작품을 하기도 힘들어요. 작년에는 뮤지컬 ‘캐치 미 이프 유 캔’이 유일한 신작이었죠. 공연은 두 달 정도 연습하고 해야 하는데 스케줄 맞추는 게 힘들거든요.”

EBS

Table listing EBS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title.

"월드스타 싸이보다 조용필 공연 보고싶어요"

올봄 가요계를 강타한 '가왕' (歌王) 조용필과 월드스타 싸이 중 조용필의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갤럽이 7일 밝혔다.



<조용필>



<싸이>

연령별로는 조용필 공연을 보고 싶다는 사람은 40대 58%, 50대 72%, 60세 이상 69%였다. 싸이의 공연을 보고 싶다는 사람은 20대 67%, 30대 58%로 집계

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, '싸이 뮤직비디오의 방송 부적격 판정은 적절하'는 설문에는 '부적절하다'가 47%, '적절하다'가 30%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 의견이 갈렸다.

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'부적절하다'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특히 30대가 61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더불어 '조용필의 신곡 헬로와 바운스를 들은 적 있는' 설문에는 64%가 '들어본 적 있다'고 답했다.

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title.

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title.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

36년생 언니가 싶으면 즉시 접어라. 48년생 안경을 찾는 데는 시일이 필요하다. 60년생 분당에서 여행하면 무난하겠다.

42년생 여자처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. 54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고민에서 벗어 날 수 있다.

TV 하이라이트

부녀간의 참된 사랑과 응서, 높이 30m, 아찔한 벌목작업, 그들 '신화' 개성만점 토크쇼



부녀(父女) 힐링 다큐멘터리-응서(KBS1 TV·8일 밤 10시)= 어머니날, 아버지와 딸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청자를 찾는다.



극한직업-위험목 제거반(EBS TV·8일 밤 10시45분)= 높이 30m, 나무 꼭대기에서 아찔한 벌목 작업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.



황금어장 라디오 스타(MBC TV·9일 새벽 0시45분)= 목을 만류 목은,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'신화-오래된 녀석들' 특집.

한 아버지(62)는 27년 동안 만나지 못한 딸에게 응서를 구한다. 교통사고를 내 2년째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그는 하루 7구의 귀휴를 얻어 딸을 찾아가고. 또 다른 아버지(36)는 위암 말기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.